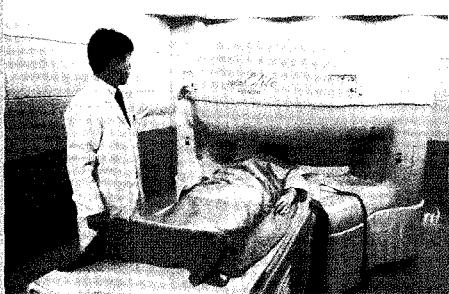




앞선 노력으로 프리미엄 검진을 향한 비상(飛翔)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영상검진부



1982년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는 부산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중추적 역할의 중심에 영상검진부가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력과 인프리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고객들의 높은 만족도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들을 만났다.

에디터·포토 | 서희경

믿고 찾을 수 있는 부산시민의 건강지킴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는 협회 최초로 CT(컴퓨터단층촬영)를 도입하며 건강검진의 질을 높여왔을 뿐 아니라 멀티CT, MRI 등도 가장 빠르게 구축했다. 그 결과 부산시에 고품격 검진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17년간 꾸준히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부산광역시지부 직원들의 노력이 숨어있었다. 하루 방문고객 1,000여명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맺은 노력의 열매인 셈이다.

“건강검진센터 하면 부산시민들 10명 중 9명은 우리 검진센터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만큼 인지도가 높다는 의미죠. 하지만 다양한 고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상검진부 하지훈과장. 그는 부산광역시지부에서 근무하며 일의 재미를 더해가고 있다. 검진고객이 많아 업무량이 많지만 영상검진부 직원들의 단합된 팀워크를 이끌어가며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봄소느끼기 때문이다.



Interview

조승진 영상검진부장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 영상검진부



● 추천하는 건강관리방법이 있다면?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직업이지만 자칫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관리해주는 우리들이야 말로 먼저 운동이라든지 등산과 같은 건강관리를 앞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고객들에게도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가 가능하니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등산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금정산이나 백양산에 올라 원기를 회복하고 오죠.

● 질 높은 건강검진사업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느지부나 마찬가지지만 고객이 얼마나 믿을 만족할 수 있게 검진이 진행되느냐가 건강검진사업의 질을 좌우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건강상태가 앙호한 편이지만 좀 더 길게 검사받길 원한다면 단 몇 분이라도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배려가 서비스의 밑바닥에 있을 때 고객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한 검사는 기본이겠죠(웃음).

● 건강검진사업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계획은?

2010년 중반 즈음 우리지부가 더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고, 아시아 최고,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비전과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지금보다 향상된 실력을 쌓기 위해 배움의 자세를 잊지 않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과거 X-선 영상필름 사용으로 발생했던 특유의 냄새도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한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 보급으로 개선됐고, PACS 도입 1년 6개월여 만에 10억 원이라는 초기비용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후검진(유방, 갑상선, 경동맥, 전립선초음파, 조영CT 등)을 통해 검진환경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질환별 클리닉과 여성클리닉, CT검진 등은 질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파트별유소견관리를 통해 암 확진율이 높아졌고 정기적인 추적검사로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됐다.

■ 시스템은 벤치마킹, 팀워크는 룰 모델이 되다

하루에 최대 1,000여명의 검진고객을 소화하다 보니 영상검진부 직원들에게 체력은 국력이나 마찬가지다. 지부내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그들의 저력을 일컬어 ‘에너지이자’라고 부른다. 영상검진부는 고객들의 관심과 요구가 집중되는 곳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높아진 고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계울리 할 수 없다. 이런 노력을 반영하듯 올해 전문방사선사시험에선 영상검진부에서 전국수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영상검진부 전원이 코디네이터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지식과 서비스마인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프로의식’ 때문이다. 그들이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이런 문화와 분위기 때문이다.

영상의학 전문의 2명과 방사선사 30명, 물리치료사 1명 등 적지 않은 인원이 각자의 개성을 표출하면서도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영상검진부. 이들에게는 2010년 더욱 막중한 목표가 생겼다. 1,740평의 건물에 신관검진센터를 출범시켜 서울로 향하는 VIP고객들을 유치하고 동북아 의료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PET-CT와 초전도 MRI, 128Ch-CT, 최첨단 Digital X-선 장치를 도입한다. 한강이남에서 제일 우수한 의료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파이팅을 멈추지 않는 부산광역시지부 영상검진부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